

ADB 관계자와의 회의 및 세미나

- 최희선 연구위원 (산업경제연구센터)

1. 출장자 : 최희선 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센터)
2. 출장지역 : 필리핀 마닐라
3. 출장기간 : 2011년 9월 26일(월) ~ 9월 29일(목) (3박 4일)
4. 출장목적 : ○ ADB 프로젝트 중간보고 및 향후 진행방향 협의:
 - ADB 프로젝트 제목: Case Syudy on South Korea's Experience with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on Developing Countries
 - 중간보고 겸 세미나
 - 프로젝트 관계자 미팅

3. 방문일정

날짜	소재지	방문기관	일정
9. 26(월)		마닐라 도착	
9. 27(화)	필리핀 마닐라	ADB	- 중간보고검 세미나 - 프로젝트 관계자 회의
9. 28(수)	필리핀 마닐라	ADB	- 디렉터 면담 (Dr. Ra, Dr. Song, Dr. Kim)
		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(정부부처)	- 디렉터 면담 (Ms. Marta M. Hernandez)
9. 19(목)		서울 도착	

4. 결과보고

ADB 프로젝트 중간보고

○ 주요 질문:

- 한국과 같이 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경우에도 직업계 고교 교육에 적지 않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
-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및 기능공 부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가 부분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어떠한지
- 한국 정부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-

높은 대학진학률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정책인지:

- . 한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대학진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.
- . 대졸 취업자와 고졸 취업자 간의 임금격차는 벌어지고 있지만, 워낙 대졸 실업자 및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.
- . 한국의 교육당국은 이제 인력양성정책 수립에 노동시장 성과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, 두 가지 차원에서 높은 대학진학률을 조정하고 있음.
- . 첫째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재학생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한 후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우수 기능인력 공급. 최근까지는 직업계 고교 졸업자가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음.
- . 둘째는 Affirmative Action 류의 정책: 정부, 공기업, 대기업 등 직업안정성이 높은 직장에서 대졸 일자리에 일부 고졸 사원 채용

□ 향후 진행방향 협의

- case study 제 3장의 내용에 한국의 자격제도 현황 및 산업별 인력양성 사례 추가 요청

□ 필리핀 교육부 중 하나인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(TESDA)의 Director 면담

- 필리핀의 경우 교육부가 기초교육부(초등 및 중등교육담당), 고등교육부, 직업교육부 (TESDA) 등 3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음.
- 이와 같은 분산된 교육행정 거버넌스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수 있지만, 강력한 조정 중재력을 발휘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
- 필리핀도 높은 고등교육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

지 못하고 있음. 임금격차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결혼시장 등 사회적 요인 등 때문에 고등교육 수요가 높음. 필리핀 국내에서 진학을 못하는 경우에는 주변 아시아 국가의 대학에 진학한 후 다시 귀국하는 사례도 증가.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에 우수한 청년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. 한국의 최근의 전략에 깊은 관심을 보임.

- TESDA 의 국장 포함 20명 정도의 관리 중 2명만이 남성. 정부 공무원의 다수가 여성이며 물론 교사의 대부분도 여성이라고 함. 필리핀도 초중등 및 대학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에 비해 좋은 편이어서 직업안정성이 높은 좋은 직장에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있음.